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539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7월 10일 (음력 5월 27일) 화요일

광주시의회, 민주당 집안싸움에 '파행'



6·13 지방선거 당선인들로 구성된 제8대 광주시의회가 개원과 동시에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23개 의석 중 22석을 싸붙이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의 자중지란으로 첫 임시회가 개최하지 못한 정황에 들어갔다.

임시의장 정회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유력 정치인의 외부 임김과 '감부 나뉘먹기'로 8대 의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누더기 의회'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9일 오전 10시 8대 의회 첫 임시회인 제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소집한 뒤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 2명 등 의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예정했으나 정회회의는 불과 2~3분 만에 정회했다.

최다선 최연장자 자격으로 의장 직무대행을 맡은 반재신(56·북구·재선) 의원은 정민근 사무처장의 집회경위 보고에 이어 곧바로 의장직에 올랐으나 "민주당 의원총회 소집요구가 있어 정회를 선언한다"며 의사봉을 세 차례 두드린 뒤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갑작스런 정회 소동으로 의장과 부의장 선거 상임위원 선임 모두 울스톱됐다.

이날 파열음은 의장단 선거에서 파생된 예고된 파행이었다.

제8대 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당초 반 의원을 비롯해 김동찬(북구5), 김용진(남

구1) 의원 등 민주당 재선 3인방'이 출사표를 던졌으나 개원 1시간 전에 반 의원과 김용진 의원이 돌연 사퇴했다. 팽팽하던 지지표가 주말을 계기로 김동찬 의원측에 쏠리면서 역부족이라는 판단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세 후보들 사이에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지역별로 골고루 분배하자는 의견이 오갔고 이에 대한 입장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파행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장단 구성을 놓고 민주당 시장위원장과 3선 국회의원 출신 간의 대리전 양상이 노골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빚어진 파행이어서 "유력 정치인들의 외부 임김에 지방의회가 뒤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임시의장의 정회권한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현행법 절차상 최다선, 최연장자가 임시의장 지위를 부여받은 뒤 새 의장이 선출된 직후 권한을 신임 의장에게 넘겨주는 방식이지만 정회나 산회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일부 의원들의 의원 총회 소집 요구 등이 있을 경우 정회 등을 선언할 수 있는 셈이다.

거꾸로 정회 중에 새 임시의장을 뽑아 의장을 선출하는 것은 불법이어서 김동찬 의원 지지자들끼리의 일종의 정무적 반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광주시의회에서는 지난 2006년 임시의장의 정회선언에 반발, 반대파 의원 10명이 밤늦게 의장선거를 강행, 강박원 의원을 5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한 전례가 있으나 법원 판례상 이같은 상황은 위법으로 판시된 상태다.

대선지법은 지난해 4월 임시의장이 정회를 선포한 상태에서 일부 의원들이 임시의장을 새로 뽑아 의장을 선출한 것을 두고 "지방자치법과 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의장 선출은 물론 이어진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도 모두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민주당 집안싸움에 야당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유일한 야당 의원인 정의당 장연주 의원은 "민주당 내홍에 할 말을 잃었다. 매우 당혹스럽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의장과 제1, 2 부의장을 선출한 데 이어 상임위원장 4명은 13일, 운영위원장은 19일 각각 선출할 예정이다.

신봉우 기자

Photo 漫評

설전

이국종 이주대행원 관외외상센터장이 자유한국당의 비상대책위원직 제안을 고사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간 설전이 오가고 있다.

관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지난 7일 논평을 내어 자유한국당을 향해 "보수의 회화화를 멈추고 해산하라"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대통령 탄핵과 지방선거 참패에도 보수의 회화화를 멈추지 않는 자유한국당 모습이 개탄스럽다"며 "정치적 중흥" 상태의 자유한국당이 중흥의상센터장 이국종 교수에게 비대위원직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영석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8일 "존재감마저 희미해져서 기반이 흔들리고 있어 질처처에 있는 바른미래당이 한가롭게 다른 당의 비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원한다면 바른미래당 의정당을 위한 주치의의 소개해줄 의향이 있다"는 점도 밝혔다. 고 덧붙였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신봉우 · 자료사진=뉴스1



'김영록號', 에코생태식물공원 건립 '전남 관광랜드마크' 만든다

TF팀 구성, 9월 임지조사용역 실시

민선 7기 전남도가 에코생태식물공원을 건립해 전남 관광랜드마크를 조성한다.

민선 7기 김영록 전남도지사 취임준비기확단은 9일 오전 전남 도청 기자회견에서 그동안의 활동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취임기획단은 '에코 전남'을 목표로 (가칭) 국립 에코생태식물공원을 건립해 글로벌 관광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한편 호남지역의 새로운 경제성장의 모멘텀

확보를 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는 파리의 에펠탑, 싱가포르의 보타닉 가든처럼 대규모 관광객 유치에 전남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전남도 내홍했다.

기획단은 전남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난대 및 아열대 식물이 자생 가능하고 국유지 포함 토지 확보 수월, 중국 일본 동남아 관광객 등 글로벌 수요뿐 아니라 국내 항공 및 크루즈선, KTX이용 접근 용이로 국내 수요가 충분해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건립방법과 테마 등은 지역 내외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에코생태식물공원 건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조만간 TF팀을 구성하는 한편 9월부터 임지조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용역비 2억원도 확보해 놓은 상태다.

국비 58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에코생태식물공원은 앞으로 임지 선정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

김영환 기자



이건철 기획단장은 "에코 생태식물공원 조성은 SOC 다른 사업에 비해 투자대비 효과가 매우 크고 최고의 저탄소 대책이 될 것이다"면서 "국립생태원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차별화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사가 함께 만들어 가는 활기찬 산업현장!

노·사 갈등을 넘어 상생할수 있는 전남노사민정 사적 조정제도가 있습니다

노·사 간에 갈등이 있나요?

- 전라남도 노사갈등 조정해결실무위원회가 도와 드립니다.
- 노·사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 임금, 퇴직금, 해고, 산재 단체교섭 노조활동, 노동문제로 애로사항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등 누구든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전라남도 노사갈등조정해결실무위원회